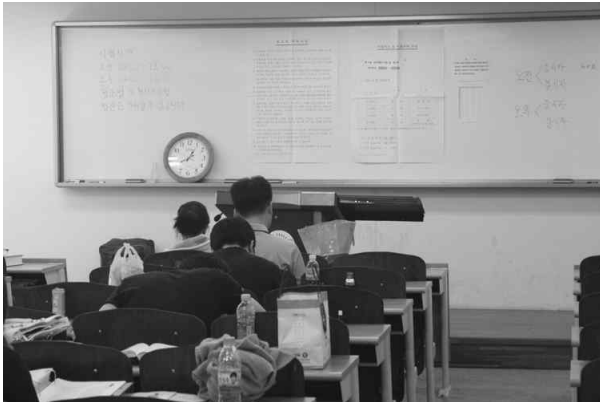


##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시행



<사법시험 2차시험장 풍경>

제 52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지난 6월 23일(수)부터 6월 26일(토)에 걸쳐 실시되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6개 대학에서 치러진 이런 시험에서도 역시 일부 과목은 지문이 길고 어렵게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을 당혹케 했다.

간략히 과목별로 살펴보면, 첫날 헌법과 행정법은 기본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안연습을 꾸준히 한 수험생들이라면 평이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첫날 시험이라 쟁점의 포섭과 답안의 분량조절에 실패한 수험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날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경우, 상법은 1문의 경우는 다소

변형되어 출제되기는 했지만 합병무효 등 회사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출제되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2문 각 문항의 경우는 잘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되어 고전한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이번 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된 과목으로 지목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8월호 교수님강평을 참조하기 바란다). 셋째날, 형법의 경우는 예년과 달리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주어져 쟁점이 흔들릴 여지는 줄었으나, 많은 쟁점들로 인해 답안작성에 애를 먹은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에 따라 죄수론 부분이 주요특점 포인트가 되리라는 분석이 많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고 하는 쟁점 위주로 출제되어 크게 어려움은 없었으나, 1문의 경우 구속기간 계산 문제 등에서는 자주 접하지 않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어 고전했다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다. 넷째날, 민법의 경우는 최근 출제된 민법 문제 중에서도 체감난이도에 있어 가장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제2문의 2와 제3문의 경우 쟁점 추출이 어려웠을 정도로 난해하게 출제되었다.

언제나 그러하듯, 주관식 시험은 수험생들의 예측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년여 수험기간과 마지막 4일간의 시험에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